

영암군, 체험 프로그램 논의

청년들이 만드는 영암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영암·서울농장 지역자원발굴 해커톤 개최



영암군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조성하는 영암 서울농장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영암 서울농장 지역자원 발굴 해커톤” 행사를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영암군 일원에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사)영암군귀농협회가 주최하고, 공공미디어협동조합 주관으로 영암군 관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암을 부탁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영암 서울농장이 전남권을 대표하는 도농교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체험,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도시청년과 지역의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영암군 거주 청년(6명)과 전국에서 온 청년들(19명)이 7명의 농업농촌/지역재생 전문가(멘토)들과 각각 7개의 팀

을 이뤄 영암 11개 읍면을 제공된 차량으로 자유롭게 탐방하며 새로운 농업, 농촌 자원을 발굴하고 해커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2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익 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첫날 일정은 타지역 참가자 10여 명과 영암지역 4H 청년, 청년창업, 마을기업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모여 네트워크 파티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멘토와 3인의 팀원으로 구성된 7개의 팀들이 주최측에서 제공한 승용차량을 인계받아 각자 주제에 맞는 권역별로 골고루 나뉘어 권역체험마을을 관계자 심층인터뷰, 농산물 생산/유통지 탐방, 문화재/관광자원 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방이 진행되었으며 팀당 평균 10개소 이상 현장 답사가 이뤄졌다.

셋째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해커톤 발표에는 전문심사위원단이 참가해 7개 팀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수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결과 ‘계층별/계절별/테마별 체험코스 개발’과 ‘비행장-F1경기장-수상스포츠’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한 소공자팀(김규은(서울), 정현철(전남), 이형준(충북))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금정면 대봉 탐방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구성한 ‘대봉코트(조승희 외 2인)’ 팀과 마을공동체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구립을 품은 달(박수빈 외 3인)’ 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소공자팀의 이형준 씨(충북 청주시)는 “영암을 처음 왔지만 매우 훌륭한 자연, 문화, 체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한다”며 열정적인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해커톤에 팀원으로 참가한 김기수 군(영암군 학산면)은 “영암지역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 영암을 조금씩 바꿔 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 ‘영암 서울농장 지역자원 발굴 해커톤’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안들을 발전·구체화하여 영암 서울농장 운영 및 군 시책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맛의 도시’ 목포 음식점 이용객 만족도 높아... 긍정평가 71%

맛의 도시 목포 음식점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는 지역 음식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1% 이상이 청결·친절·맛 전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부터 11월 까지 2개월간에 걸쳐 북항 회센터와 평화광장 일원 등 관광객이 밀집하는 곳에서 음식점 이용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무작위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2,265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항목은 친절·맛·청결·가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천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시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맛의 도읍으로 발전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20대 부터 60대 까지 고른 연령층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체 방문객의 71%가 청결, 맛, 친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맛에 대해서는 80.7%가 만족을 표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61.1%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보통평가가 35%로 적지 않았다. 또, 주차공간 부족, 1인 메뉴 및 유아 동반 시설 부족, 목포만의 특색 있는 메뉴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목포시는 앞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상황극 이용 교육 등의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주들의 자성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음식점 밀집지역에 현장 관리부스 운영 및 위생감시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바로 듣고 개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강진군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의 메카로 거듭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4개면 전지훈련 준비 끝



스포츠 메카 강진군이 각종 전지훈련 및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스포츠타운 조영시설을 확충해 선수단을 맞이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4월 국비 포함 4억5천만 원을 들여 청지축구전

용구장의 조명시설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1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타워폴 4개(35m), LED 투광등 110개 등 종합운동장의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사업비 13억5천만 원을 들여 축구전용구장 3개면(다산, 영랑, 하멜)을 완공했다.

또 지속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강진군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부각시킨 결과 지난 11월에 96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한 2019 꿈자람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해 개최할 수 있었다.

강진군은 겨울철에도 따뜻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으며 축구전용구

장, 제1 제2 실내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 센터, 실내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친절한 서비스, 맛깔나는 음식 등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참여 선수단과 코치진의 일정에 맞춰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26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간 26개팀, 350여 명이 참여해 개최되는 ‘2019 강진청치배 전국 중고 배드민턴 우수팀 초청대회’를 앞두고 있어 내년 동계전지훈련과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함평군산림조합, 조합원과 만남의 행사 개최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서명 운동 나서

조합원의 소득증대·복지증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함평군산림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함평읍과 월야면에서 조합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 2,326명을 대상으로 함평군산림조합의 현황, 운영성과 및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으며,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짧은 감과 더덕재배 임업기술교육도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교육지원사업·임업경제사업·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함평군산림조합은 2020년 사업계획에서 임업인 기술교육 확

대, 산림용·임업용 비료 할인판매 및 신용사업 서비스 증진을 약속했다.

또한, 현재 임업분야의 최대 관심사인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도 농업에 비해 실질 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공익형직불제 도입대상에 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참석자 전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무안읍 정다연 씨, 승달장학금 500만원 기탁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무안읍

정다연 무안신도시공인중개사 대표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써 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다연 대표는 “과거 동생들이 장학회 장학금 수혜를 받고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 그 고마움에 언젠가는 나도 장학금을 기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이렇게 기탁하게 되었다.”고 “이제 마음

에 짐을 던 듯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고 전했다.

김 산 무안군수는 “무안의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앞으로 무안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 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뜻 깊게 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